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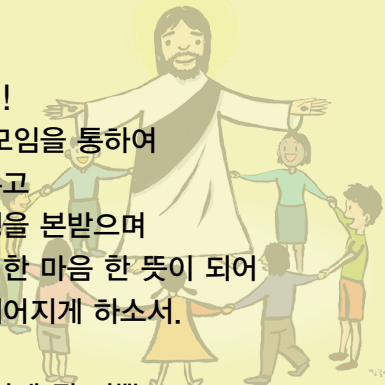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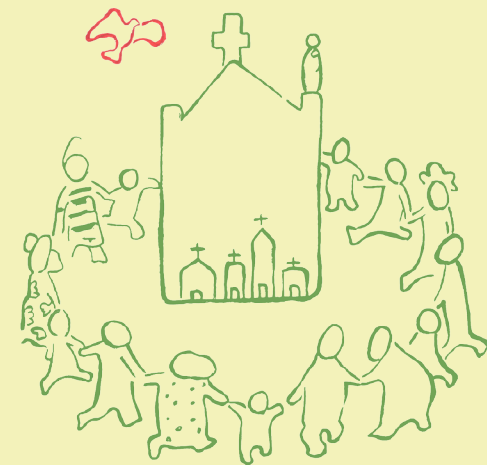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소공동체 모임 순서

- ▶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 ▶ 소공동체모임 시작 전에, 매월 2째주 혹은 3째 주일의 복음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성호경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 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진행]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진행]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진행] • 길잡이에서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 [1] 주님초대하기
- [2] 하느님 말씀
 - 1) 복음말씀을 읽는다.
 -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 [5] 말씀 살기
 -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 [6] 마침기도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진행]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진행]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진행]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진행]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진행]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9. 마침성가

-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요한 6,51-58)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 김옥순 수녀 성바오로딸수도회 —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요한 6,51)

성체 성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이고 정점입니다.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살과 피가 되신 이 큰 신비는 사랑으로밖에 이해될 수 없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166장 “생명의 양식”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요한 복음 6장 5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52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5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54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57 살아 계신 아버



지켜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58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요한 6,56)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처럼 내가 행한 희생과 헌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요한 6,53)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격어보지 못한 고난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빛이 더욱 드러나듯, 이 고난

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중요하고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배려하고 희생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위하는 것이고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온 우리 이웃들과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번 성체 성혈 대축일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그러한 희생과 헌신이야말로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의 기적일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으로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166장 “생명의 양식”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연중 제12주일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마라. (마태10,26-33)

시작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1장 “나는 믿나이다”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마태오 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을 26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27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28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29 참

새 두 마리가 한 뿔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30 그 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 31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32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33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너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 10,26)

사람들에게 드러날까 두려워했던 것이 있었습니까?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 10,28)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럴만한 것이었습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였습니까?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감추고 싶어하기도 하고, 반대로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싶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일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감추어지지도 않거나 와 시간이 지나서 드러날 때가 되면 드러나기 마련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감추어 두어야 할 만한 구린 것들은 될 수 있는 한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움이겠지요. 또한 드러내고 싶은 것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맙시다. 때가 되면 드러나기 마련이니 말입니다. 이번 연중 12주일 함께 기도하면서 나는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지, 또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드러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으로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1장 “나는 믿나이다”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소확행 소공동체

—거창본당 중앙리 5반 이성의 루치아—

25년 전 갓 시집온 저에게 반모임에 참석해야 한다고 하신 시어머니의 권유로 당시 비신자였던 저의 첫 소공동체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5여 년이 지난 지금 저는 중앙리 5반의 반장을 맡고 있으며 우리 반 소공동체의 산증인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거창본당은 5개 구역에 24개 반으로 나누어 소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고 중앙리 구역에 속하는 5개 반 중 제5반인 저희 반은 16명의 반원이 소공동체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은 거창읍에 위치해 있지만 도심에서 벗어난 외곽지역으로 모두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낮에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임을 주로 밤에 하고 있는데 반장이 차를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모셔오고 또 모셔다 드립니다.

이런 정성으로 낮에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평균 10명이 넘는 반원들이 참석하며 즐겁게 모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반은 ‘묵주기도 5단’으로 소공체를 시작하여 길잡이 자료 순서에 따라 모임을 진행하고 맨 마지막에는 항상 ‘가정을 위한 기도’로 마칩니다. 소공동체 모임 때는 일체 음식을 나누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분들의 수고를 덜고 모임이 친목도모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임신부님의 강력한 권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잘 정착되어 반원들 모두가 돌아가면서 부담없이 가정에서 소공동체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져서는 안 될 우리반의 자랑거리는 가족 공동체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 또 고부간,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아이들까지 함께 모여 복적복적 했습니다. 얼마 전 신부님께서 “신앙은 교육되는 것이 아니고 전염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런 소공동체 모임에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신앙이 전염되는 때일 것 같습니다.

주로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 햇별이 나서 감사하고, 비가 와서 감사합니다. 농사는 8할이 하느님 덕분이라고 입을 모으면서 농사 이야기, 날씨 이야기, 살아오신 이야기를 나눕니다. 특히 연세드신 할머니들의 지혜와 생활에 묻어있는 하느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작고 행복한 기회입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활동력은 떨어지고, 봉사는 더딥니다. 하지만 어르신과 아이, 젊은이들과 부부가 함께 모여 하느님 말씀에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울고 웃을 수 있는 소중한 모임이 기다려지는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소공동체입니다.





•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소공동체 선교 활동의 구체적인 방법

4. 선교활동 시 유의사항

- (1) 옷차림은 검소하고 단정하게 하고, 친절하고 항상 미소로 대합니다.
- (2) 상대방에게 좋은 모습이 있는지 잘 보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 (3) 상대방이 말을 할 때는 귀담에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정합니다.
- (4) 상대방에게 사랑과 인내로 대합니다.
- (5) 천주교에 대하여 자부심과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령 천주교는 인도의 마더 테레사 같은 분들의 자선활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차게 이루어졌음을 알립니다.
- (6) 경솔한 태도나 말을 삼가야 합니다. 실수할 때에는 즉시 사과합니다.
- (7) 상대방이 기분 나쁜 말을 하더라도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 『소공동체 교육 기초단계』(서울대교구사목국,통합사목연구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사목국 일정

■ 지구별 구역분과위원장 모임

지 구	일 시	장 소
마산지구	6월 10일(수) 오후 2시	양덕동성당
창원지구	6월 11일 (목) 오후 2시	반송성당
진주지구	6월 17일(수) 오후 2시 30분	신안동성당
거제지구	6월 18일(목) 오후 2시 30분	고현성당

- 대 상 : 각 본당의 구역분과위원장, 부위원장, 서기, 총무
- 신 청 : 교구 공문을 참조하여 본당을 통해 신청
- 문 의 : 055)249-7021~3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